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1. 13. (목), 14:00~16:5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1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3
---	--------------------------------	---

## 【보고사항】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보고	13
2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	14



# 심 의 사 항





## 1.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에서 신청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세부내용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양주 회암사지 유적  
(Archaeological Site of Hoeamsa Buddhist Temple in Yangju)
- 신청유산

연번	명칭(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비고
1	양주 회암사지	사적	1964.06.10.	신앙, 수행, 생활영역
2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2021.06.24.	
3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귀부)	보물	1963.09.02.	부속시설 (고승들의 기념물)
4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1963.09.02.	
5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1963.09.02.	
6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7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8	무학대사비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9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문화재자료	2004.11.29.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변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질 증거이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 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마. 등재 기준 상세 내용

-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만개했던 불교 선종의 동아시아적 유행과 수행 전통, 청규\*에 기반 한 선종사원의 공간 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4세기에 조성되어 16세기까지 운영된 회암사지의 건물터와 고승들의 기념물은 고려의 선종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약 200여년 간 선종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확연히 보여준다.

\* 청규(淸規) : 선종 교단의 조직과 수행에 필요한 규칙들을 체계화시켜 문자로 남긴 것으로 당나라의 백장 화해(749~814)가 처음 만들었으며, 주요내용은 선원에서의 의식주 생활, 수행법, 제도 등임

바. 잠정목록 등재추진 경과

- 2018.4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부결>
- 2020.1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부결>
- 2020.6월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

[ 잠정목록 신청서 비교표 ]

양주시 작성

기존제출본 검토의견 (2020.1.)	금회 보완내용	보완사유, 검토근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기준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한 OUV의 시기(고려)와 발굴을 통해 규명된 시기(조선) 불일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암사지 유적 변화과정을 보완 함(고려~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암사지는 고려 말(14C)부터 조선 전기(16C)까지 단절 없이 존속된 유적임.</li> <li>- 고려 말 나옹의 중창유구의 공간 질서와 조선 전기 중수·중건의 변화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유구의 고고학적 정밀 분석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조사된 회암사지 유적의 최상층 유구는 고려 말 유구와 조선 전기 중창 유구가 일부 혼재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li> <li>- 회암사는 고려 말 나옹의 중창 유구 배치와 공간 질서(틀)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중수·중건 과정에서 중첩 또는 확장해 나갔음을 보여줌</li> </ul> </li> </ul>

기존제출본 검토의견 (2020.1.)	금회 보완내용	보완사유, 검토근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성 및 진정성 충족 여부</li> <li>- 유산의 실체를 온전히 제시하기 위한 추가 조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발굴 유적은 양주 회암사지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범위로 진행되었음을 보완하여 기술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적 서쪽의 군부대는 회암사지와 직접적 관련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사업으로 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li> <li>○ 발굴유구 및 문헌자료의 비교분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발굴 유적은 양주 회암사지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범위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분석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세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의 선종사원 및 15세기 이후의 불교사원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보완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성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원·명대 불교사원의 변화 연구</li> <li>- 일본 중세 선종사원의 변화과정 연구</li> <li>- 한국 신라 말~고려시대 선종사원 연구</li> <li>- 한국의 불교사원(사지)과 회암사지 비교연구</li> <li>- 조선 전기 원당 연구</li> <li>- 조선 전기 불교 전통의 지속성 연구</li> <li>- 회암사지와 해외 고고유적의 비교연구</li> </ul> </li> <li>○ 중국, 일본의 선종사원 개별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암사지와 유사성 및 차이점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의 역사 경관 저해에 대한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 주변의 개발 압력 및 역사 경관 저해요소가 경미한 수준에서 상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속적 관리와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향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기술함</li> <li>○ 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기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적 사업을 통해 유산의 역사문화경관의 위해 요소를 제거, 또는 적정 수준에서의 지속적 정비 및 관리 추진</li> </ul> </li> </ul>

## 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의견

- 조사일 : 2021. ○○. ○○.
- 조사자 : ○○○, ○○○, ○○○
- 조사의견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충족 및 등재범위(지역적 범위)

#### 1) 등재신청기준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서기 14세기 후반 나옹화상이 주도한 중건사업에서 당대 선종 불교의 기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청규(淸規)에 따른 가람배치를 구현한 것이 현재까지 온전히 유지되어 있는 고고유적으로 확인되어 한국 불교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자료라는 것과 함께 선종사원의 가람배치에 보이는 규율성을 갖는 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음.
- 신청유산은 한국 사원 유적 중에서도 특출한 의미를 갖지만, 동아시아 선종 사원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며 발전된 구성을 온전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등재신청기준 (iii)을 충족하며, 중국·일본 등에서 유행했던 선종 사찰과 비교를 통해서도 OUV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16세기까지 200년간 전승 발전된 면모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보완 서술이 필요하므로 14세기 창건 당시의 틀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유적의 선명성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 (iii)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기준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장기적 등재 신청서 작성 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함.
  - 동아시아 선종 사찰의 건축 배치 양식 등의 가치 교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등재기준 (ii) 또는 불교 역사의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축유구로서 등재기준 (iv)를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2) 완전성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중건 이후 15, 16세기에 일부 증개축은 있으나 나옹의 14세기 중건 당시의 지형적 여건 및 주변 환경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청규에 따른 선종사원의 공간요소(신양시설, 수행시설, 생활시설, 부속시설 등)들이 당시의 상태를 고고학적 유적으로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완전성을 충족함.
- 문헌기록과 발굴유구에 나타난 현상을 근거로 사원의 전체 경역에 대한 명확한 고증을 통한 완전성 보완이 필요함.
  -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유적 중에서도 14세기 선종 사원의 구체적인 건물 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유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회암사수조기」와 현 발굴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옳음. 「회암사수조기」와 발굴결과 간의 일치된 구성만으로도 타 유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완전성을 충족할 수 있음. 한국 사원에서 보기 드문 고원 영역의 복합적인 구조는 이 시기 선종사원이 청규를 중심으로 사원을 구성하고자 추구했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자료임.

## 3) 진정성 충족여부

- 유산의 진정성 관련 서술은 문헌기록(청규, 회암사수조기, 나옹화상행장 등)과 발굴유구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료와 물적 증거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면 좋겠음.
- 고고학 발굴에서 드러난 유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었으나 유구 정비과정에 학술적 고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불필요한 시설물(정청지역에 설치한 와담 등)이 추가된 것을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했으며, 향후 등재 추진 시 철거해야 할 것임.
- 유구정비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정식 등재를 준비할 경우 발굴유구 정비과정에 사용된 보강석재의 재질, 치석기법, 박석 포장재료, 배수체계 등에 대한 학술적 고증과정 등 설계와 시공 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진정성 서술 요소 중, '정신과 감정' 요소에서 나옹의 창건과 무학의 계승 부분을 보완하여 강조한다면, 무학과 태조의 관계를 시발로 조선시대 대표적 왕실사원으로 기능했던 회암사의 위상과 의의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음.

#### 4) 등재 범위의 타당성(유산의 구성, 유산구역의 설정 등)

- 문헌기록 및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회암사지의 중심 사역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연관 고승들의 석조 기념물들로 구성된 유산구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유산구역을 중심사역(신앙, 수행, 생활영역 건물터)과 부속시설(고승들의 기념물)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당대의 사역은 구역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등재를 추진하면서 중심사역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을 따라 고승들의 기념물이 있는 곳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유산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 해 볼 만함.

#### 5) 비교연구의 적절성

-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이 소략하여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국내·외 불교 유산 및 중국·일본 선종 사원과의 비교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회암사지의 건축기법 내지는 유사 모티브로 건립된 ‘과주 혜음원지’나 ‘개성 만월대’ 등 건축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회암사지 건축의 탁월성을 부각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비교자료는 국내·외 선종사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고고유적의 특성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교 고고 유적(인도 비하르 날란다의 날란다 대승원 고고학 유적\*)과 비교 검토를 보완하면 좋을 것임.

\* Archaeological Site of Nalanda Mahavihara(Nalanda University) at Nalanda, Bihar :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불교 유적지로, 기원전 3C ~ 서기 13C에 걸쳐 승려들의 수행처였으며, 오랜 세월동안 세계 불교학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됨 (등재기준 : iv, vi)

- 신청유산은 부도탑 외에는 지상 유물이 거의 없는 절터 유적이므로, 현 비교연구의 개괄적 언급보다는 구체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려전기 선종사원을 대표하는 ‘고달원지’와의 구성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 함. 국외 유산과의 비교연구도 ‘영암사’, ‘아육왕사’ 등 중국 선종사원과 ‘견장사’, ‘원각사’ 등 일본 선종사원의 현 구조에서 초기 구조를 유추하며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 신청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지자체의 적극적 보호, 특히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회암사지 박물관의 전문 인력에 의한 직접 관리 방식으로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유효·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유산구역 내의 유구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잘 정비되어 있고, 석조기념물들 또한 양호함.
- 다만, 유산구역에서 길 건너 위치하여 발굴을 마친 '별원 구역'의 성격을 해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및 주민의 의지 및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지자체 및 주민들의 세계유산 등재 의지는 강하나, 신청유산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빌딩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 계획 및 향후 관광 압력 등의 예측 가능한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 보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유산구역에 인접한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 형성이 필요 하며,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유산구역과 군부대 주둔지 경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유산 주변경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회암사'와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발굴 조사 후 노출 정비된 고고학적 유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한 유지 관리 대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도 필요 함.
- 유산구역과 회암사지 박물관 사이 부지(공원)를 현재 주민을 위한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산의 완전성 유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제로 행사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 아. 검토 의견

- 접수한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실시 결과, 그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대응한 집필진의 수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설득력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신청서 서술의 일부분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설명문으로 등록되기에 다소 미진함
- 문화재청 예규(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대상>의 각 심의 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서, '잠정목록'의 단계에 적합한 검토가 필요함

## 자.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유산의 성격, 명칭, 구역범위(①사역범위, 지형, 경관 고려 ②부도군과 사찰(유적) 연결여부 검토), 비교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권고함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출석 9명 / 원안 가결 9명



# 보 고 사 항



##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완료보고

###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추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이하 세계유산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우리 청은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음
-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 등을 담고 있는 5년 주기의 법정계획이자, 향후 각 지자체 등의 5개년 시행계획 수립(동법 13조)을 위한 준거가 되는 종합계획임
- ‘세계유산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 라. 마. :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별도의 행정조치(의견수렴, 관보고시)를 실시한 이후 공개 예정

\*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 바.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출석 8명 / 접수 8명

## 2. 「제1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제1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위원국으로서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에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4년간의 임기(2020-2024)로 활동 중이며,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역할과 기능>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재 결정
2.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및 총회 상정
3. 10만 달러 이상의 국제원조, 무형유산보호 모범사례 검토 및 승인
4. 협약 가입 당사국의 각종 보고서 검토 등
5.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 참여

#### \* 위원국 구성

- 4년 임기의 24개 위원국으로 구성(연임 불가, 위원국 수임 후 2년 휴지)
- 격년 개최되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 6개 지역 그룹별 공석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

### 다. 주요내용

#### 1)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요

- 기간/방식 : 2021.12.13.(월) ~ 12.18.(토) / 온라인
  - 시간 : 10:15 ~ 15:15 (한국시간 18:15 ~ 익일 01:15)
- 주요 참석자 : 24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대표단(한국 포함), 180개 협약 가입국 대표단, 유네스코 인가 NGO, 전문가 등
  - 한국 대표단 : 외교부(주유네스코대표부, 유네스코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팀)
- \* 수석대표 :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 국내 대표단은 온라인 참석

## 2) 위원회 일정 및 의제

일자	주요일정	비고
'21.12.13.(월)	개회식 및 의제 채택 정기보고(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국가) 검토	
'21.12.14.(화)	긴급보호목록 심사 등	긴급보호목록 심사 : 6건
'21.12.15.(수)	대표목록 심사	대표목록 심사 : 48건
'21.12.16.(목)	대표목록 심사 모범사례 심사 국제원조 요청 심사	'매사냥' 확장 등재 심사 포함 (한국 등 18개국 공동등재국에 6개국 추가)
'21.12.17.(금)	NGO포럼, 등재유산 후속 조치 보고 무형유산기금 운영 계획 보고	
'21.12.18.(토)	2022년 평가기구 선거 차기 위원회 개최지 결정 등	

## 3) 주요 의제별 논의 내용

### ○ 총회에 대한 무형유산위원회 활동(2020.1~2021.12) 보고

- 위원회 주요활동으로 △신규 협약 가입국 증가(앙골라, 소말리아) △목록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적 성찰을 통한 건전한 협약 거버넌스 구축 노력 지속 △정기 보고 메커니즘 개편에 따른 지역 기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및 보고서 제출 비율 증가(87.5%) △국가별 발전계획 및 정책 등에 무형유산 통합 확대 △인식 제고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2022-23년 기금재원 활용계획안 검토 △협약 이행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및 승인 △협약 목록 등재 건 등 소개함.
- 우리 정부는 오랜 무형유산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공식·비공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통합 관련, 유네스코 본부-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간 협력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개발 등의 사례와 같이 추후 지속적인 무형유산 보호 참여 및 기여 의지를 표명함.

### ○ 사무국 활동(2020.1~2021.6) 보고

- 사무국 주요성과로 △목록 메커니즘에 대한 성찰 프로세스 전개 △정기보고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적 신뢰도 제고 및 제출 비율 증가(87.5%)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다중모드(multi-modal) 접근방식으로서의 전략적 전환 △교육과 무형유산 통합 등 섹터 간 협력사업 추진 △커뮤니케이션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고도화 △주제별 이니셔티브 확대(무형유산과 기후변화, 무형유산과 상업화, 도시 맥락에서의 무형유산 등)를 소개함.

- 기 등재 종목의 명칭 변경
  - 페루 정부가 ‘에수바, 페루의 우아치파이레족이 아라콤부트어로 부르는 기도문 노래(Eshuva, Harakmbut sung prayers of Peru’s Huachipaire people)’(2011년 등재)를 ‘Esuwa, Harakmbut sung prayers of Peru’s Wachiperi people’로 명칭 변경을 신청함.
  - 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종목 관련 공동체 요청에 적극 대응한 페루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명칭 변경을 승인함.
  
- 긴급보호목록 등재종목 현황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 검토
  - 1차 정기보고 시한이 도래한 7건, 2차 정기보고 시한이 도래한 13건 등 총 20건이 제출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1차 보고서 6건과 2차 12건 등 총 18건의 보고서가 제출됨. 미제출 된 2건(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은 2021년 12월까지 제출 후 2022년 제1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임.
  
- 정기보고서 검토(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 당사국 협약 이행 및 대표목록 등재 종목 현황)
  - 사무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정기보고 시스템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선정된 지역그룹 III(남미·캐리비안) 내 32개 당사국 중 28개국에서 2020년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함.
  - 정기보고 개편목적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시스템 조정 △결과기반 보고 시스템으로서 효율성 및 모니터링 강화 △동일 지역 내 당사국 간 동료학습 및 교류 증진을 통한 보고서 제출 비율의 개선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지원을 통해 ICH-10 양식 개정 및 온라인 보고양식 개선이 가능했다고 설명함.
  -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과거 최저 16%에 불과했던 보고서 제출 비율이 87.5%까지 상승했고, 지역 내 국가와의 적극적인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대한민국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보고를 마친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당사국과 사무국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을 언급함.
  
- 무형유산기금의 국제원조에 관한 당사국 보고
  - 보고기간(2019.1.1. ~ 2021.6.30.) 동안 국제원조를 받아 진행 중인 46건의 사업 중 총 29건의 보고서 접수, 17건이 미접수됨. 이 가운데 △말리, 동티모르에서 준비 지원을 제공받아 2건의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신청함.

- 2008년 이후 국제원조를 통해 총 55개국 112건 사업에 총 831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이 중 1그룹(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기금을 지원받음. 그 중 5a 지역그룹(아프리카)가 41%를 지원받았고, 3지역그룹(남미·캐리비안)이 23%, 4지역그룹(아시아·태평양)이 20%, 5b지역그룹(아랍)이 9%, 2지역그룹(동유럽)이 7%를 차지함.
  - 북한, 콜롬비아, 몽골, 쿠바 등은 국제원조를 통해 목록작성, 기록화 등 협약 이행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이를 통해 국가 내 무형유산 보호 및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며 국제원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검토
    - 6건의 등재신청서 가운데 3건이 등재 권고, 3건이 정보보완 요청을 받음. 바하마에서 철회한 1건을 제외한 총 5건 중 4건이 긴급보호목록에 최종 등재됨.
  -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검토
    - 48건의 등재신청서 가운데 36건이 등재 권고, 11건이 정보보완 요청, 1건이 등재불가 권고를 받음. 예멘, 아르메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자메이카에서 철회한 5건을 제외한 총 43건 중 38건이 최종 대표목록에 등재됨.
    - \* 한국은 2022년 ‘한국의 탈춤’ 등재 심사 예정
  - 무형유산 기금 : 자발적 공여 및 기타 이슈
    - 2018~2021년 4년 간 △기금 우선순위 1.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조달 목표액 500만 달러 중 11%인 536,445달러가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쿠웨이트, 스위스에서 공여되었고 △기금 우선순위 2. 교육에서의 무형유산의 조달 목표액 200만 달러 중 15%인 291,111달러가 네덜란드, 대한민국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에서 공여되었으며 △사무국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조달 목표액 연간 950,000달러 중 4%인 181,867 달러가 접수.
    - 기타 자발적 추가 공여로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바,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ICHCAP을 포함한 약 20건의 추가 예산 지원이 있었고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통합 이니셔티브에서 ICHCAP, 중국, 카자흐스탄의 추가 지원 접수
    - 2022~2025년 4년 간 기금사용 우선순위 : △다중모드(multi-modal) 접근방식을 활용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보호 역량강화 △공식·비공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 대한민국은 ICHCAP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으로의 무형유산 통합 등에 자발적 공여금을 제공해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기금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유네스코 및 아태지역 회원국의 협약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2022년 심사기구 구성

지역그룹	전문가(6명)
I	Mr. Pier Luigi Petrillo(이탈리아)
II	Mrs. Lubica Volanska(슬로바키아)
III	Mr. Nigel Encalada (벨리즈)
IV	Mr. Kirk Siang Yeo (싱가포르)
V (a)	Mr. Limeneh Getachew Senisahw (에티오피아)
V (b)	<b>Ms. Nahla Abdallah Eman (이집트) 선출</b>

지역그룹	인가 NGO(6개 단체)
I	Workshop intangible heritage Flanders
II	European Association of Folklore Festivals
III	<b>Daniel Rubin de la Borbolla Center (멕시코) 선출</b>
IV	<b>Aigine Cultural Research Center (키르기스스탄) 선출</b>
V (a)	Association pour la sauvegarde des masques (ASAMA)
V (b)	Syria Trust for Development

○ 제17차 정부간위원회 개최일자/장소/의장단 선출

- 장소 : 미정(모로코 또는 보츠와나 중 차기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 예정)
- 기간 : 2022년 11월 28일~12월 3일(6일 간)
- 의장단 선출
  - 의장국 : 위원회 개최국
  - 부의장국 : 스위스, 체코, 파나마, **대한민국**, 보츠와나, 모로코

○ 기타 의제 : 아이티의 '주무 스프(Joumou soup)' 등재신청서 검토 요청

- 사무국(문화분야 사무총장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제17차 정부간위원회 심사 예정인 '주무 스프(Joumou soup)'에 대해 예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적용, 심사하였음을 설명함.
- 위원국 다수가 등재에 동의를 표하며 협약 운영지침 상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고, 등재 관련 사항은 위원회가 권한을 지니고 있고, 이후 총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주무 수프를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하고, 제9차 협약 총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함.



4) 제16차 정부간위원회 등재 유산

○ 긴급보호목록(4건)

국가명	유산명
에스토니아	수마 지역의 확장된 통나무 보트 제작과 활용
미크로네시아	캐롤라인 방식의 항로 찾기 및 카누 제작
동티모르	타이, 전통 직물
말리	전통 타악기 '볼론'과 관련된 문화적 연행과 표현

○ 대표목록(38건)

국가명	유산명
바레인	진주 채취자의 노래, 피지리
벨기에	죽마 마상 시합
볼리비아	타리하 대축제
불가리아	비소코, 불가리아 남서부 돌렌과 사토브차의 다성부 노래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콩고 룸바
덴마크	이누이트의 북 춤과 노래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의 클링커 보트 전통
에콰도르	파시오, 노래와 시
핀란드	카우스티넨 피들 연주, 그리고 이에 관련된 관행과 표현
대한민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등 24개국	매사냥, 살아있는 무형유산
인도네시아	가믈란
이라크	알 나오르 관련 전통 공예 기술과 예술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송로버섯 채취, 전통적 지식과 관행
마다가스카르	말라가시어 카바리, 마다가스카르의 웅변술
몰타	아나, 몰타의 민요 전통
몬테네그로	코토르의 보카 해군 문화 전통: 기억과 문화 정체성의 축제적 표상
모로코	트부리다
네덜란드	코르소 문화, 네덜란드의 꽃과 과일 퍼레이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자수 예술과 관련된 연행, 기술, 지식
파나마	그리스도 성체 성혈 축제와 관련된 춤과 표현
페루	도기와 관련된 가치, 지식, 구전 지식, 그리고 아구아루나 사람들의 관행
폴란드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행렬을 위한 꽃 카펫 전통
포르투갈	캄포 마이오르 공동체 축제

국가명	유산명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등 16개국	아랍 캘리그래피: 지식, 기술, 그리고 관행
세네갈	체부 전, 세네갈 요리문화
세이셸	무티아
스리랑카	덤바라 라타 칼라라 제작 전통 공예
시리아	쿠두드 할라비아
타지키스탄	팔락
태국	태국 남부 무용극 노라
터키	이슬람 전통 캘리그래피 예술 후스니 하트
투르크메니스탄	두타르 제작 공예 및 노래와 함께 하는 전통 음악 공연 예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타타르족 외르벡 장식 및 관련 지식
우즈베키스탄	박시 예술
베네수엘라	성 세레 요한 숭배 관련 축제 기간
베트남	타이족의 소에 무용 예술
인도	콜카타의 두르가 푸자
말레이시아	송켓

○ 모범사례(4건)

국가명	유산명
이란	이란의 전통 캘리그래피 예술 보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케냐	케냐의 전통 음식 증진과 전통 식문화 보호 성공 스토리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의 놀이: 유산의 재발견, 다양성의 찬양
필리핀	생활 전통 학교(SLT)

○ 국제원조(2건)

국가명	유산명
몽골	몽골 비엘지의 유지와 전승 / (요청금액)미화 172,095달러
동티모르	타이, 전통 식물/(요청금액) 미화 265,895 달러

라.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출석 8명 / 접수 8명